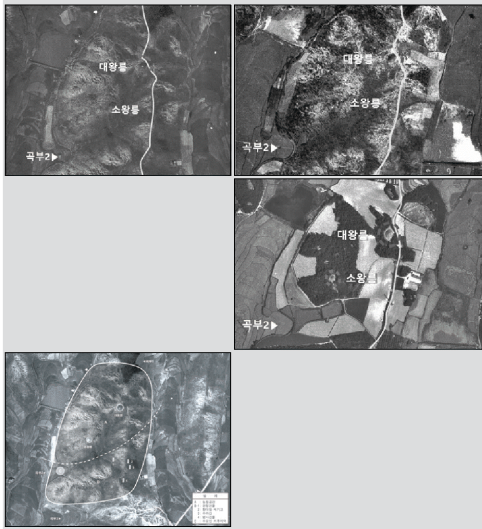




익산 쌍릉(雙陵), 능원으로서의 기초적 검토

A Basic Review of Iksan Ssangneung (Twin Tombs) as a Royal Tomb

이 문 형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연구교수

I. 머리말

II. 익산 쌍릉과 주변유적

III. 능원(陵園)으로서의 쌍릉

IV. 익산 쌍릉의 능원 영역과 공간 구성

V. 맺음말

국문 요약

익산 지역은 백제 제30대 무왕(재위 600~641)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왕궁리유적, 미륵사지 등 가시적인 고고유적이 산재한 백제의 고도(古都)이다. 특히, 무왕과 비(妃)의 능으로 알려진 익산 쌍릉은 2017년~2019년까지 재(再)조사가 실시되어 백제 말기 왕릉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쌍릉 주변에서 대형건물지를 비롯한 제의 관련시설로 추정할 수 있는 일련의 시설물들이 확인되었다.

백제의 상장의례는 기본적으로 중국의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익산 쌍릉은 공주 및 부여왕릉원의 능과 달리 저평한 구릉 정상부에 단독(독립)적으로 자리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의 변화는 중국 당나라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익산 쌍릉 주변의 조사 성과와 과거 항공사진을 분석하여 능원의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남-북 670m, 동-서 370m, 평면 형태는 장방형, 면적은 약 260,000m² 내외로 추정되었다.

쌍릉 능원의 공간은 크게 능침공간과 제의 및 수묘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능원의 북쪽에 마련된 능침공간은 능원 영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남쪽에는 구릉의 동-서 사면에 북쪽으로부터 수묘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관청, 제기 등을 보관하던 향대청, 구릉의 낮은 하단부에는 음식을 마련하던 수라간, 그리고 남쪽 출입구 인근에 위병(衛兵)들의 숙소와 업무공간 순으로 배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능원 관리의 실질적 주체였던 수묘인들의 거주 공간은 시야에 띄지 않는 저지대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익산 쌍릉, 무왕, 능원, 능침, 제의, 수묘.

I . 머리말

익산 지역은 백제 제30대 무왕(재위 600~641)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왕궁리 유적, 미륵사지 등 가시적인 고고유적이 산재한 백제의 고도(古都)이다. 특히, 무왕과 비(妃)의 능으로 알려진 익산 쌍릉¹⁾은 일제강점기 조사된 이후, 2017년~2019년까지 재(再)조사가 실시되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1a, 2021b).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보고된 소략한 정보에서 생산되고 파생된 인식이 실제와 얼마나 많은 차이가 있는지 극명하게 확인되었으며, 결과적으로 백제 말기 왕릉에 대한 인식의 폭을 넓히는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이문형 2019, 2022). 또한 대왕릉에서 출토된 107개체의 인골은 자연과학적 분석을 통해 그 피장자가 무왕일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이성준 외 2018, 이우영·김이석 2019). 이러한 분석 결과로 볼 때 의자왕이 중국 당(唐)으로 압송되어 그곳에서 생을 마감한 점을 생각하면 대왕릉은 이 땅, 한반도에 영면한 백제 왕의 마지막 능인 것이다.

최근 익산 지역의 백제시기 고고학 성과는 주목할 만하다. 문헌에 기록되지 않은 중요 유적의 가시적인 실체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쌍릉의 주변 정비과정에서 확인된 대형건물지(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3), 傳 서동생가터에서 발견된 석축(石築) 저장시설(전북문화재연구원 2023)과 중국 북조(北周)에서 주조된 오행대포(五行大布)의 출토(전북문화유산연구원 2024), 오금산성(舊익산토성)에서 발견된 집수시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4b) 등을 들 수 있다.

발표자는 익산 쌍릉 재조사 이후 그 특징을 정리하면서 능원(陵園)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이문형 2022). 본 논고 역시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 조사된 주변 유적의 성과를 더하여 한 발 더 나아가보려 한다. 현재 백제 능원과 연관된 문헌 및 고고 자료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더불어 필자의 능력 한계로 인하여 곡해나 오독이 적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해 연구자 분들의 많은 가르침을 부탁드립니다.

1) 현재 '능원'의 구역은 대왕릉과 소왕릉을 포함한 일부 구역이 해당된다.

Ⅱ. 익산 쌍릉과 주변유적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팔봉면 석왕동 왕묘리(王墓里)라는 곳에 두 기의 능이 남북으로 나란히 있는데 ‘쌍릉’이라 한다(조선총독부 1920: 648~661). 쌍릉은 동-서로 길게 뻗은 오금산(해발 120m)에서 다시 남쪽으로 분기한 능선상에 자리하고 있다. 두 기 모두 낮은 구릉 정상부에 약 18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북동쪽이 대왕릉, 남서쪽이 소왕릉에 해당한다.

쌍릉은 1917년 일제강점기에 조사된 이후, 약식 보고서를 통해 봉분의 크기, 석실의 규모 등 개략적인 양상만 알려져 왔다(조선총독부 1920: 648~661). 이 같은 답보 상태에서 미륵사지 석탑(서)에서 출토된 사리봉영기를 계기로 2017년 다시 조사되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1a).

한편 쌍릉 주변에 대한 조사는 능 주변의 정비과정에서 간헐적인 조사가 몇 차례 이루어졌다. 이후 대왕릉과 소왕릉의 조사 성과를 계기로 ‘익산 쌍릉’이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포함되면서(문화재청 2020) 주변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학술조사가 실시되었으며,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다. 본 장에서는 쌍릉의 주요 특징을 소개하고²⁾ 최근 조사된 주변 유적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1] 익산 쌍릉 및 주변 유적분포도

2) 쌍릉의 주요 특징은 필자의 2022년 논고를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1. 익산 쌍릉

재(再)조사로 밝혀진 쌍릉의 주요 특징으로는 1)봉분 조성-판축기법 적용, 2)석실 구조-명확한 제원과 세부기법 확인, 3)묘제 축조-수릉(壽陵)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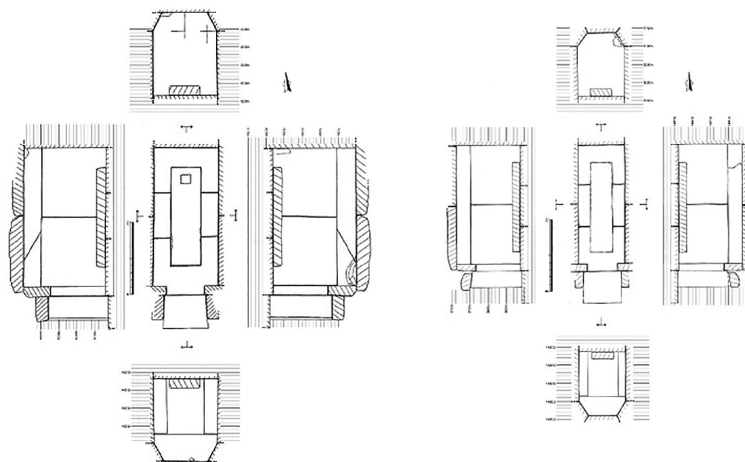
피장자가 안치된 석실 즉, 현실을 살펴보면 전체적인 구조와 축조방식에서 대왕릉과 소왕릉의 큰 차이는 없다. 다만, 크기에 있어 대왕릉이 약 50cm 정도 큰 규모, 그리고 소왕릉에 시설된 배수로와 돌레석, 묘표석 등은 대왕릉에서 확인되지 않았다.

석실의 구조를 보면 평면형태는 장방형, 단면 육각형의 고임식 구조, 짧은 연도를 중앙에 개설한 백제 말기의 전형적인 횡혈식(橫穴式) 석실이다. 석실의 각 부재는 양질의 화강암을 잔다듬하여 면을 고르게 치석하여 사용하였으며, 벽면을 구성하는 각각의 판석을 빈틈없이 견고하게 결구하였다.

석실은 북벽 1매, 동-서 양장벽에 각각 2매의 판석, 장대석(고임석) 1매, 바닥은 3매의 판석을 사용하였다. 석실의 각 부재는 북단벽의 십자형의 먹선(墨線)을 기준점으로 동-서 양장벽과 고임석이 정확하게 일치하도록 결구하였다. 현실 바닥 중앙에는 화강암 재질의 관대를 설치하였다.

입구부인 남쪽은 2매의 문주석(門柱石), 그 상부에 평면 육각형의 판석 1매를 올렸으며, 대형 판석 2매를 뚜껑돌(蓋石)로 사용하였다. 연도부는 판석 2매를 사용하여 비교적 짧게 개설하였으며, 바닥에는 1매의 판석을 시설하였다.

현실 및 연도부 입구의 폐쇄는 각각 1매의 판석을 사용하였다. 특히, 대왕릉의 경



[그림 2] 대왕릉(左) 및 소왕릉(右) 석실 실측도

우 현실 폐쇄석 가장자리에 백회(白灰)를 발라 밀봉하였다. 그리고 연도부 남쪽에는 외부에서 현실로 연결되는 긴 널길(墓道)을 개설하였는데 소왕릉의 경우 바닥면 중앙에 배수로를 시설하였다. 세부 제원은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익산 쌍릉 주요 제원(이문형 2022, 일부 수정)

		대왕릉	소왕릉
입 지		낮은 구릉 정상(해발 44m 내외)	낮은 구릉 정상(해발 38m 내외)
봉분 규모(m:직경×높이) (남-북×동-서/높이)		26.0×24.0/4.0	13.6×12.8/2.9
석 실	천장 유형	고임식	고임식
	현실규모(cm) (길이×너비×높이)	401×175×225	343×128×175
	장축 방향	N-7°-E	N-2°-E
	평면/단면형태	장방형/육각형	장방형/육각형
	석실 위치	반지하식	반지하식
	축조 석재	판석(화강암)	판석(화강암)
	관대(cm)/무게(kg) (길이×너비×높이)	화강암 1매 270×84×25/1,727kg	화강암 1매 245×63×20/926kg
연 도	규모(cm) (길이×너비×높이)	68×125×165	45×107×139
	위치	중앙	중앙
	형태	현문식	현문식
	폐쇄	판석(1매)	판석(1매)
묘 도	규모(m) (길이×너비)	25.0×3.5~6.4 내외	15.0×3.8~5.2 내외
	평면 형태	‘八’ 자형	‘八’ 자형
	바닥	생토면	생토면 / 암거형 배수로
기 타			둘레석(경계석), 묘표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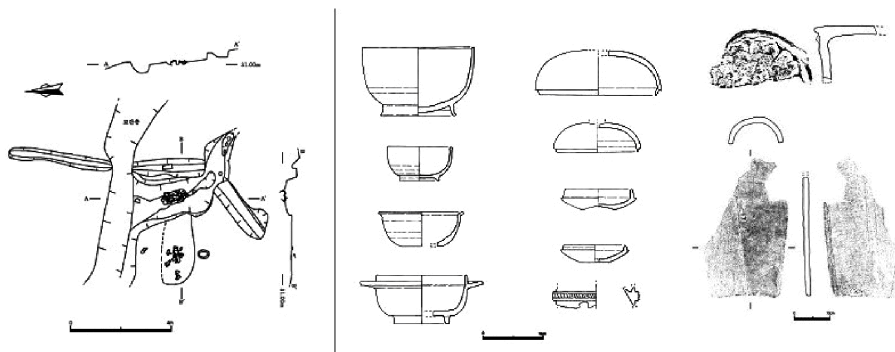
2. 주변유적

현재 익산 쌍릉의 보호구역은 두 기의 능과 그 주변 지역 일부에 해당된다. ‘백제 왕도 핵심유적 발굴조사 마스터플랜’에 따라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주변에서 백제시기의 다양한 유구가 조사되었다. 현재까지 조사된 유적의 주요 성과를 정리 하면 다음과 같다.

1) 익산 석왕동유적(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2)

2009년 쌍릉 테마관광지 조성과정에서 조사된 유적으로 소왕릉과 남쪽으로 연결 되는 지역이다. 서쪽으로는 구릉의 사면과 동-서 방향의 곡간부가 해당되는데 묘목

장과 계단식 경작지로 활용되고 있었다. 조사는 3개 지점에서 지상건물지, 구상유구 등이 확인되었으나, 후대 경작 등으로 인해 잔존 양상이 좋지 않다. 반면, 상대적으로 유물은 연화문막새와 인장과 등의 기와류와 녹유벼루편, 대부완, 전달린 토기 등의 토기류가 수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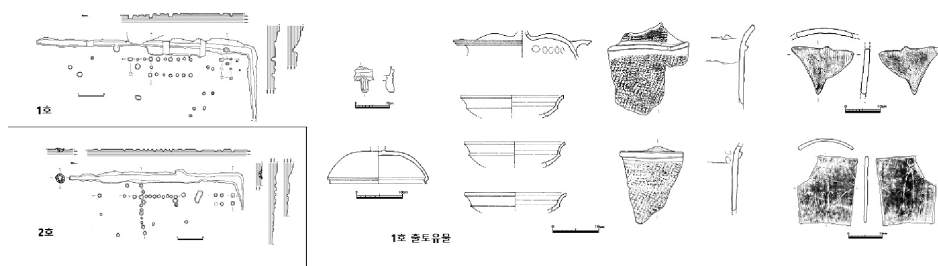


[그림 3] 석왕동 유적 2지점 추정건물지(左) 및 주요 출토유물(右)

2) 익산 쌍릉 정비예정지역 내 유적-1차-(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3)

1차 정비예정지역은 오금산에서 분기하여 남쪽으로 뻗은 구릉의 동쪽 사면으로 북쪽에 자리한 대왕릉과 동일한 구릉의 남동쪽으로 약 180m 떨어진 지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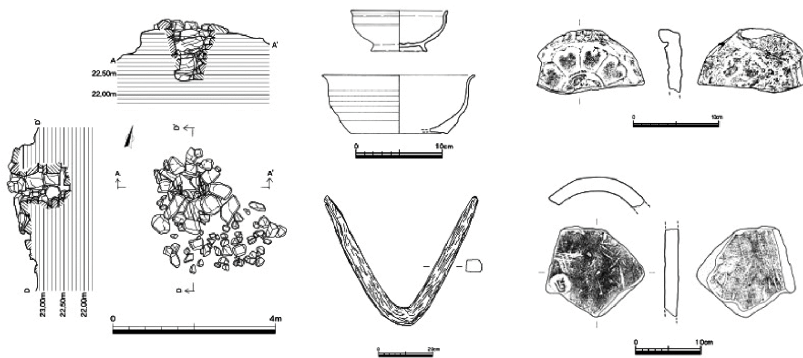
조사결과 삼국시대에 해당하는 지상식 건물지 3동과 수혈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특히, 1호와 2호 건물지는 30m에 이르는 대형건물지로 내부에서는 벼루, 기대 등의 토기류와 함께 인장과를 포함한 암기와 등이 출토되었다.



[그림 4] 익산 쌍릉 정비예정지역 내 1차 유적(건물지 및 출토유물)

3) 익산 쌍릉 정비예정지역 내 유적-2차-(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3)

2차 정비예정지역은 앞 서 2009년 공원조성과정에서 유구가 확인된 3지점으로



[그림 5] 익산 쌍릉 정비예정지역 내 2차 유적(우물 및 출토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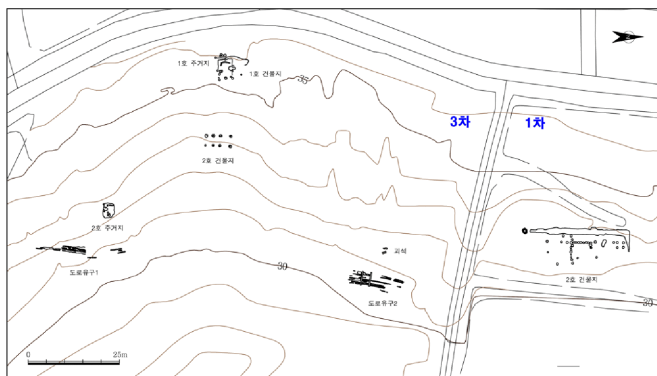
당시 석축우물, 건물지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으나, 복토·보존조치가 이루어진 곳으로 소왕릉에서 남서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곡간부가 해당된다.

조사결과 석축우물, 수혈유구를 비롯하여 도로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유물은 대부분 완 등과 함께 연화문막새(2009년), 인장과, 목기 등이 출토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회색점질토(빨층) 상부에 산화망간이 함유한 갈색사질토층이 약 30~70cm 두께로 유적 전반에 걸쳐 수평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양상은 원래 곡간부의 경작층(빨층)을 인위적인 성토과정을 거쳐 상층에 생활 관련유구를 시설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익산 쌍릉 정비예정지역 내 유적-3차-(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4a)

3차 정비예정지역은 대왕릉과 연결되는 동일한 구릉의 남동쪽으로 1차 예정지역과 남쪽으로 연결되는 동쪽 사면이다. 후대의 경작과 시설물 등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훼손이 많이 이루어졌으나 삼국시대의 지상식 건물지를 비롯하여 수혈주거지, 도로유구 등이 확인되었다.



[그림 6] 익산 쌍릉 정비예정지역 내 3차 유적(상단부 배치도)

Ⅲ. 능원(陵園)으로서의 쌍릉

사람은 출생과 동시에 죽음이라는 이면의 그림자를 항상 지니고 산다. 특별한 신분의 왕(王)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 두려움은 ‘계세(繼世)사상’을 낳고 ‘상장의례(喪葬儀禮)’로 발전하였으며, 그리고 그 가시적 완성체인 ‘능원(陵園)’으로 귀결된다.

능원은 ‘능(陵)’과 ‘원(園)’이 합쳐진 말이다. 능원은 능묘, 이와 연관된 각종 시설물, 더불어 수묘(守墓)에 필요한 시설 등을 포함한 영역(공간)을 칭하는데 중국에서는 그 출발점을 진시황릉으로 인식하고 있다. 진시황릉(여산릉) 즉, ‘여산원(驪山園)’은 복합형무덤건축³⁾으로 분묘제사의 시작이며(黃曉芬 2006: 407) 이후 후대 능원제도 성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박순발 2024: 9) 보고 있다. 이후 한-위진남북조-수를 거쳐 당(唐)대에 이르러 능원은 상장의례와 함께 완벽하게 제도화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齊東方 2012: 71).

백제 웅진시기 이후의 상장의례는 기본적으로 중국 남조의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남조(六朝) 능묘의 특징으로는 장지 선택에 있어 풍수설의 중시, 가족묘 풍습의 유행, 단실(單室)이면서 전실(塼室)의 구조, 무덤 전방 배수로 설치 등을 들 수 있다(羅宗眞 2012: 128~137). 더불어 북조(北朝)는 동위와 북제 황릉의 능묘에서는 연장자를 하단인 남쪽에 배치하고 아랫사람을 상단인 북쪽에 배치하는 방식,⁴⁾ 벽화와 가족묘 풍속의 유행 등을 꼽을 수 있다(羅宗眞 2012: 116~118). 그리고 수·당 초기의 왕릉들 역시 북조의 왕릉들과 마찬가지로 침전과 부속건물을 포함하는 능원을 갖추고 있다(임영재 2022: 162).

백제 왕릉 역시 풍수에 입각한 입지, 전실묘의 축조 등 무령왕릉을 통해서도 중국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다. 최근 학계에서는 과거에 비해 왕릉과 그 주변 시설을 연계하여 능원으로 확대 해석하려는 시각이 점차 대두되고 있다. 공주왕릉원의 A·D지구에서 조사된 두 곳의 방단적석유구(조유전 1991; 윤근일 1988)를 제의(제단)시설로 파악한 견해가 있다(서정석 1995; 이남석·이현숙 2016; 정재윤·박초롱 2019; 충청남도역사문화원 2020; 이현숙 2024). 그리고 부여왕릉원 중앙고분군 남쪽 전면의 공터를 배례 행위의 공간으로 추정하거나(김규운·양숙자 2016: 110~111) 최근

3) ‘복합형무덤건축’은 지하의 거대한 매장시설과 주위의 각종시설 그리고 지상의 거대한 판축무덤, 각종 건축물, 그리고 이를 둘러싼 담장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4) 전체적인 능묘 배치에 있어 부여왕릉원의 중앙고분군 능의 배치와 연결되고 있어 주목된다.

서고분군에서 조사된 1호 건물지(취사·난방 기능 없음)를 의례용으로, 2호 건물지(취사·난방 기능 있음)는 4호분 조영기간 주거용 건물지로 보거나(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20: 220~221), 무덤 앞에 일정기간 머물렀던 빈(殯)과 연관된 시설로 본 견해도 있다(정재윤·박초롱 2019: 48). 여하튼 공주 및 부여왕릉원의 능의 배치 등 전체적인 공간이나 경관으로 볼 때 의례를 포함하여 해당 시설을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한 부속시설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까지 제단시설 이외에 뚜렷한 관련유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 익산 쌍릉 주변에서는 길이 30m 내외의 지상식 건물지 등 일련의 시설물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다.

앞서 전술한 것처럼 익산 지역에는 무왕(재위:600~641)과 연관된 고고유적이 산재해 있다. 무왕 재위시기는 중국 수·당대에 해당하는 시기로 중국의 상장의례를 적극적으로 수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기록을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무왕은 618년 당(唐)이 중국을 통일하자 여러 차례 걸쳐 사신을 파견하였고,⁵⁾ 당 고조는 책봉으로 화답했다.⁶⁾ 또한 『舊唐書』에는 무왕의 부음을 접한 당 태종이 곡(哭)을 하고 부물(賻物)을 내렸다는 기록이 있다.⁷⁾ 이와 같은 기록으로 볼 때 무왕의 능으로 비정되는 익산 쌍릉 조성에 당나라의 상장의례가 공주 및 부여왕릉원 보다 구체화 혹은 체계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 검토해 보고자 한다.

1. 입지(立地)

먼저 입지의 변화를 찾을 수 있다. 공주 및 부여왕릉원의 능묘가 구릉의 사면에 축조된 반면, 쌍릉은 낮은 구릉의 정상부에 단독으로 독립되어 각각 조성되어 있다. 공주왕릉원은 해발 80m의 송산에서 남쪽으로 분기한 구릉의 사면에 남-북 좌향(坐向)을 기준으로 자리하고 있다. 1~4호분의 동-서 방향으로 일렬로 연결하고 있으며,⁸⁾ 무령왕릉을 중심으로 하단 20m 범위 내에 6호분-29호분(서)-5호분(동)이 남-북 방향으로 배치되어 있다. 부여왕릉원은 능산리산의 남쪽 능선의 사면에 중앙고분군을

5) 『삼국사기』 「백제본기」 5 22년조(“遣使入唐 獻果下馬”), 27년조(“遣使入唐 獻明光鎧”), 38년조(“獻鐵甲雕斧”), 40년조(“又遣使於唐 獻金鐵甲雕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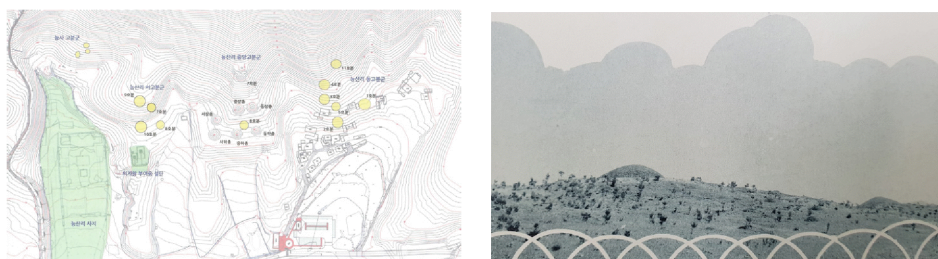
6) 『삼국사기』 「백제본기」 5 25년조, “高祖嘉其誠款 遣使就冊爲帶方郡王百濟王”.

7) 『구당서』 동이열전 백제, “貞觀 15年 璋卒 其子義慈遣使奉表告哀 太宗素服哭之 贈光祿大夫 賻物二百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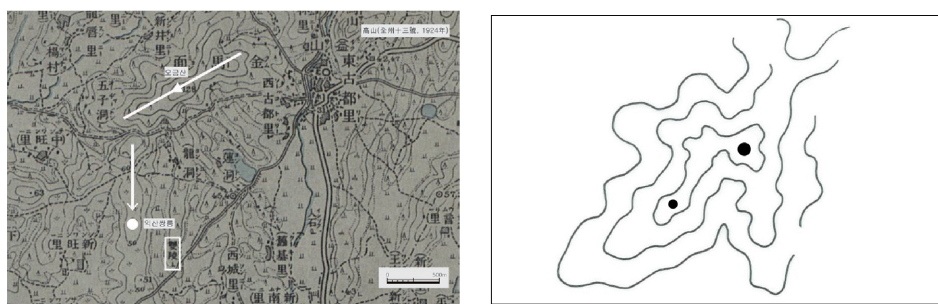
8) 1~4호분 이외에도 동-서 장축방향의 수혈식석곽묘가 1호분과 2호분의 사이에 7호분이, 4호분 남쪽으로 8호분이 조사되었다.

중심으로 동고분군과 서고분군, 크게 3곳에 군집으로 분포하고 있다(그림 7-左). 중앙고분군은 동-서 방향으로 3+2열의 능과 5호분에서 북쪽으로 약 50m 떨어진 7호분으로 자리하고 있다.⁹⁾ 7기 무덤 모두 남향 사면에 남-북 좌향을 취하고 있다. 정리하면, 공주와 부여왕릉원 모두 구릉의 남사면에 남-북 좌향의 묘실을 가진 수기의 무덤이 가족장(家族葬) 형태로 조성되었는데, 이는 당시 중국 남·북조 능묘의 특징과 동일하다. 반면 익산 쌍릉 두 기의 능은 오금산에서 남쪽으로 분기한 가지능선의 구릉 정상부에 각각 단독으로 위치하고 있다. 또한 아래 [그림 7-右]는 1957년경 익산 쌍릉의 모습이다. 지금의 소왕릉 남쪽에서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우측으로 멀리 대왕릉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두 기의 능이 한 눈에 조망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차이에도 전통의 풍수지리적 관점의 ‘산봉우리를 뒤로 의지하고, 전방으로 평원을 바라보는(背倚山峰 面臨平原)’ 즉, 좌북조남(坐北朝南)의 풍수지리를 따른 점에서 공주 및 부여왕릉원과의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익산 쌍릉 역시 동-서 방향의 오금산(해발 120m) 기슭에서 정남향으로 분기한 구릉에 자리하고 있다. 또한 기존 전통적인 석실의 남-북 좌향은 역시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그림 7] 부여왕릉원 배치도(左) 및 익산 쌍릉 1957년 전경(右)



[그림 8] 익산 쌍릉 지형도(左: 1924년) 및 배치도(右)

9) 또한 1호분(동허총)과 2호분(중허총) 사이 북쪽에서 8호분이 조사되었다.

쌍릉의 독립적인 입지 변화는 당 고조 이연(李淵)의 헌릉 이후, 독립(獨立)능 원으로의 전환(齊東方 2012: 72~76), 그리고 분묘제사로 이행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당나라 능은 산 능선에 만든 것과 평지에 봉분을 쌓아 만든 것, 두 종류가 있는데 익산 쌍릉의 독립(단독) 능은 당나라 평지에 조성된 능과 동일하다(齊東方 2012: 72~73).¹⁰⁾ 결국 당나라 상장의례를 수용한 입지의 변화로 해석할 수 있다(이문형 2022: 162). 특히 소왕릉의 경우 일정한 성토 과정을 거쳐 대지를 조성하여 축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1a: 127~128). 그리고 이러한 입지의 변화는 현실의 위치가 지하식(부여 능산리)과 반지하식(익산 쌍릉)이라는 차이를 보이게 된 것이다(이문형 2022: 162).

2. 수릉(壽陵)

수릉은 최고 권력자인 왕이 생전에 자신의 사후 무덤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고대 사회에서 죽음은 곧 흉사(凶事)로, 이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예법(禮法)에 어긋나는 행위이지만 왕의 장수(長壽)를 기원한다는 의미에서 ‘수릉’이라 했다고 한다.¹¹⁾ 중국의 역대 황제들은 사후 본인이 영면할 지하왕국을 건설하였는데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진시황의 여산릉이 대표적이다.

수릉에 관해 우리 학계에서는 과거 무령왕릉의 조사에서 출토된 ‘士壬辰年作’ 명문전을 통해 512년 무령왕이 무덤을 생전에 미리 조성했다는 전해가(박용진 1973: 63) 제기되었으나 크게 주목받지 못했으며,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다. 한편, 문헌에는 고려 공민왕(1330~1374)이 왕비인 노국대장공주가 죽자 공주의 현정릉(玄正陵)을 조성한 뒤 자신의 능을 조성했다는 기록이 전한다.¹²⁾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왕실의 수릉제도는 주자학(朱子家禮)의 영향으로 성종(1457~1494)때 폐지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충현 2021: 140).

익산 쌍릉의 대왕릉 묘도(墓道)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수릉으로 판단되는 흔적

10) 전자의 예로는 소릉(昭陵), 건릉(乾陵), 태릉(泰陵) 등을 들 수 있으며, 후자의 대표적인 능으로는 헌릉(獻陵), 장릉(莊陵), 단릉(端陵) 등이 있다.

11) 『後漢書』 권1下, 「光武帝本紀」第1下, 26年 春正月. “初作壽陵[初作陵未有名, 故號壽陵, 蓋取久長之義也. 漢自文帝以後, 皆五作陵, 今循舊制也.]”

12) 『高麗史』 권43, 공민왕 21년 6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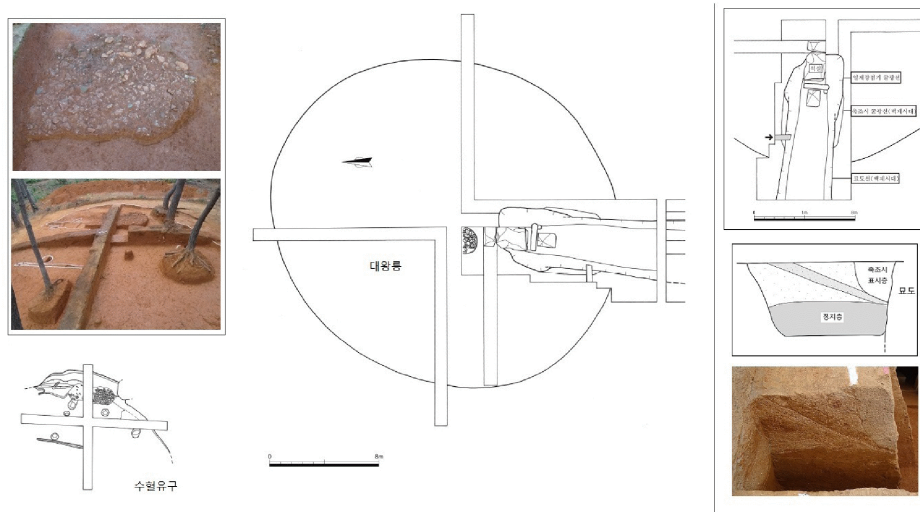
『高麗史節要』 권29, 공민왕 22년 4월.

이 확인되었다. 대왕릉의 널길(墓道) 바깥쪽으로 길이 5.6m, 너비 4.7m 내외로 굴광 후 되메운 범위가 확인되었다. 타원형 형태의 내부에는 양질의 백색사질점토가 충전되어 주변 퇴적층과 명확하게 구별되고 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1a: 136~141). 이러한 양상이 석실 출입구를 포함하여 일정부분에 한정되는 점, 관축토가 아닌 양질의 단일토양(표식)으로 주변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점, 피장자를 매납하기 위한 묘도 조성에서 해당 충전토가 절개된 점 등 이러한 정황으로 볼 때 대왕릉은 주인공이 생전에 미리 능을 축조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대왕릉의 전체적인 축조 과정을 정리하면 대지조성→현실 축조와 봉분 조성→입구부 충전(표식)후 관리→피장자 사망→입구 노출 및 묘도 개설→주검 안장→봉분 재조정 및 묘도 성토 순으로 볼 수 있다.

왕릉은 곧 절대왕권을 상징한다. 그 상징적 공간인 능원을 조성하기 위해 당대 최고의 기술력이 총동원되었을 것이다. 특히, 현실(玄室)은 최고 권력자의 사후 안식의 공간이다. 백제 사비기에 축조되는 판석조 석실은 석재의 채석-이동-치석-결구(조립)에 이르기까지 최고의 기술력과 함께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이다. 대왕릉과 소왕릉 석실에 사용된 화강암은 마치 오늘날 기계로 마연한 듯 매우 매끄럽다. 왕릉이기에 최고의 장인이 최고의 예우로 석재를 다루었을 것이다. 대왕릉의 현실 내 관대(270×84×25cm)의 무게는 약 1.7톤에 달한다. 이 같은 중량으로 보아 각 부재는 채석과정을 거쳐 능원으로 옮겨져 치석·가공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이와 관련하여 대왕릉 북서쪽으로 약 15m 떨어진 지점에서 조사된 수혈유구가 주목된다. 수혈의 규모(잔존)는 남-북 10m 내외로, 내부에서는 주공과 구 시설 등이 확인되었다. 특징적으로 유구의 동쪽 벽가에서 목탄(소결혼)과 함께 화강암 석재 잔편이 퇴적되어 있었으며, 더불어 소량의 토기편과 기와편이 출토되었다.

수혈유구의 해당 석재편과 대왕릉의 축조에 사용된 석재편을 채집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주성분, 미량, 희토류 원소 등에서 동질성이 확인되어 단일 채석지의 화강암 석재일 확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최명주 외 2019: 84~95). 따라서 대왕릉 석실에 사용된 양질의 화강암 석재는 이곳에서 치석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수혈유구에서 수습한 목탄 시료에 대한 방사성탄소연대(AMS) 결과 A.D.540~660(95.4%)로 밝혀졌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1b: 192).



[그림 9] 대왕릉 수릉 관련 총진토 양상(右) 및 북서쪽 수혈유구(左)

3. 제의(祭儀) 및 수묘(守墓) 관련시설

백제의 상장의례가 중국 남조의 영향에 많이 받게 된 그 중심에는 무령왕이 있다. 무령왕은 양나라와의 적극적인 교류를 실시하는데, 양무제가 국학(國學)에 오경박사(五經博士)를¹³⁾ 설치하자, 이를 본받아 태학(太學)을 설치하여 오경을 연구하고 궁극적으로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오경박사를 파견하기도 하였다(양기석 2013: 135~139). 이러한 점으로 보아 이미 백제에서는 유교적 상장례를 이해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단적인 예가 무령왕릉의 축조라 할 수 있다. 또한 공주왕릉원에서 확인된 방단적석유구도 분묘제사를 위한 제단시설일 가능성이 높으며, 결국 효(孝)를 중시하는 유교적 관념의 확산과 이에 따른 분묘제사의 중요성은 사비기까지 지속되었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능원은 역대 왕들의 능묘만을 위한 공간을 넘어 분묘제사를 위한 여러 시설물이 설치되었을 개연성이 높다. 특히 익산 쌍릉 주변에서 대형건물지를 비롯한 제의 관련시설로 추정할 수 있는 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그 유적 가운데 성격을 추정할 수 있는 유구를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¹⁴⁾

13) 오경박사는 易經·書經·詩經·春秋·禮記로 경학에 능통한 전문가를 칭한다.

14) 정비구역 3차에 대한 정식 보고서는 발간되지 않았다.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둔다.

[표 2] 익산 쌍릉 주변 유구의 제원과 특징

유적	유구명	해발 (m)	장축	규모(cm) 길이×너비	주요시설	출토유물
석왕동 (2012)	2지점- 1호 건물지	31.70	남-북	(783×490)	-구 · 주공열 -목탄 및 소토(아궁이?)	-토기류: 자배기편, 뚜껑, 배편 -기와류: 연화문막새, 수키와, 암키와(인장과: 巳刀)
정비 1차 (2023)	1호 건물지	36.80	N-17°-W	(3,510×1,120)	외곽: 溝('ㄱ'자형) 규모-35.1×11.2m 내부: 굴립건물지 2동 -남북 9칸×동서 1칸 : 960×240cm -남북 2칸×동서 1칸 : 280×130cm	-토기류: 벼루, 대형뚜껑편, 원통형토기편, 기대편 -기와류: 암키와(인장과:?)
정비 2차 (2023)	2호 건물지	33.10	N-4°-W	(2,730×642)	외곽: 溝('ㄱ'자형) 규모-27.3×6.42m 내부: 굴립건물지 3동 소성시설 -중앙: 1동2실(?) 우측: 520×520cm 좌측: 560×520cm 북측: 남북 2칸×동서 1칸 : 260×130cm -취사: 타원형구덩이 : 180×90cm -집수정: 남쪽 외곽 위치 : 직경130×깊이 62cm	-토기류: 백제 및 신라(병형) 토기편 -기와류: 암키와
정비 2차 (2023)	우물	23.50	.	입구 상부: 60 하부: 30 깊이: 160	-석축 -상부 '八'자형 출수구	내부: -기와류: 연화문막새, -기타: 복숭아씨앗류 외부: -토기류: 대부완, 자배기, 시루편 등 삼국~통일신라 시대 토기편 -기와류: 암키와(인장과: 辰) -기타: 복숭아씨앗류 주변: 삼족토기 등 수습
정비 3차 (2024a)	2호 건물지	33.40	N-17°-W	남-북 3칸 : 660cm 동-서 1칸 : 280cm	토심적심	
	2호 주거지	29.50	N-84°-E	(400×300)	-내부시설 : 부뚜막, 주공	-토기류: 개배, 대부완 등 -기와류: 암키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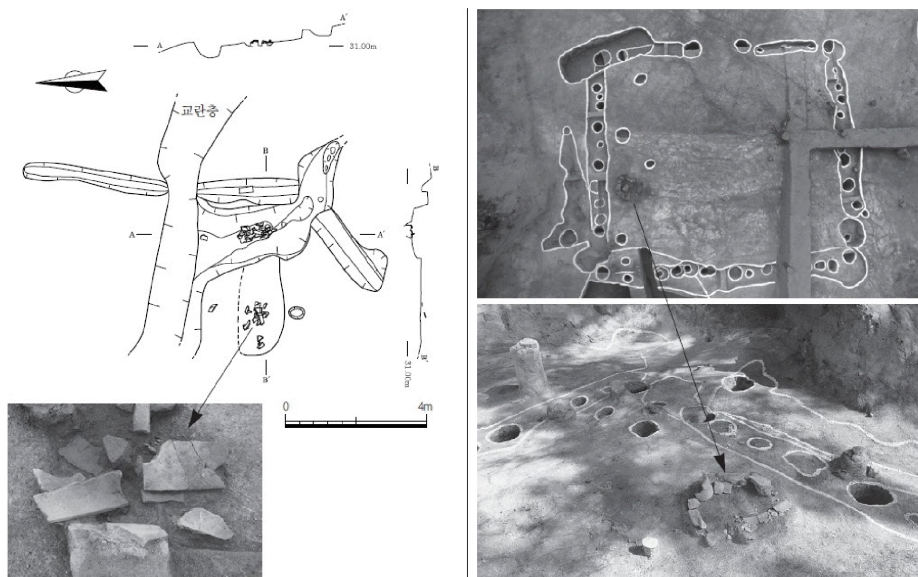
석왕동유적의 건물지(2지점)는 소왕릉 남쪽에서 동쪽으로 약간 치우친 능선 사면에서 위치하고 있다. 파괴가 심하게 이루어졌으나 구(溝)와 건물지 남쪽 중앙에 부뚜막으로 추정되는 시설이 확인되었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2: 61~62). 연화문막새를 포함하여 완형의 수키와를 비롯하여 암키와, 그리고 토기류에서는 자배기와 뚜껑, 배 등이 출토되었다. 이와 유사한 구조가 익산 신동리 2지구 1호

벽주식(대벽) 건물지에서 확인된다. 남동쪽모서리에 타원형의 형태로 중앙에 1매 석재를 지각으로 사용된 부뚜막시설로 추정하고 있다. 출토된 유물에서도 상당 부분 유사하여 석왕동유적의 건물지 역시 벽주식 건물지로 추정되며, 자배기 등의 실생활 토기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상시 거주했던 공간임을 파악할 수 있다.

정비에정지역 내 1차 유적은 소왕릉에서 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구릉과 동쪽 사면으로 1호 지상식 건물지는 해발 36.8m의 정상부에 위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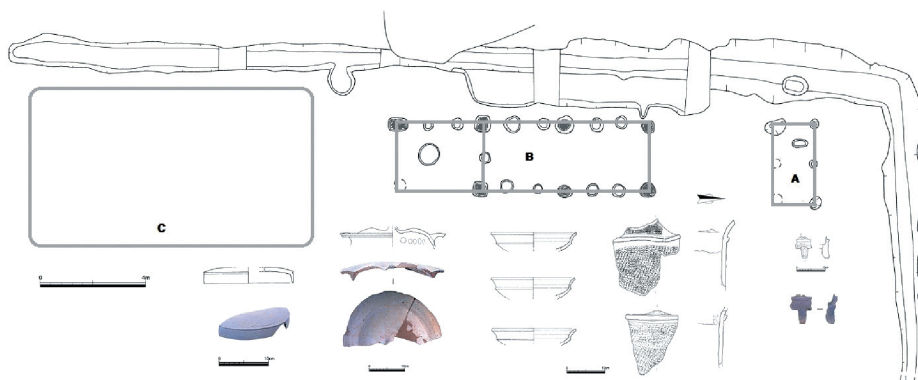
1호 건물지는 상단부인 서쪽에 ‘ㄱ’자상의 구(溝)를 두르고 그 내부에 굴립건물을 배치한 형태이다.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구의 최대 길이는 35m에 달한다.

내부의 주공열의 배치로 보아 최소 2동의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북서모서리의 건물(A)은 동-서 2칸, 남-북 1칸의 건물로 규모는 280cm×130cm 내외이다. 중심부 건물(B)은 동-서 1칸, 남-북 9칸으로 규모는 240cm×960cm 내외로 3칸마다 중심 기둥을 배치한 형태이다. 더불어 건물지의 남쪽에는 의도적으로 빈 공간(C)을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시설에는 불과 연관된 흔적이 없고 유물은 대부분이 기대, 원통형토기편을 비롯한 대형의 뚜껑이 다수를 이루고 있으며, 벼루편도 출토되었다. 출토된 유물로 보아 제의와 연관된 기물(器物)을 보관하던 시설로 판단된다. 더불어 A-B 내부 건물을 일정부분 간격을 두고 배치한 것으로 보아 각 건물에 보관하던 내용물이 상이했을 것으로 추론되는데 출토된 유물로 볼 때 북서모서리(A) 건물



[그림 10] 석왕동유적 2지점 건물지(左) 및 신동리 2지구 1호 건물지(右)(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2: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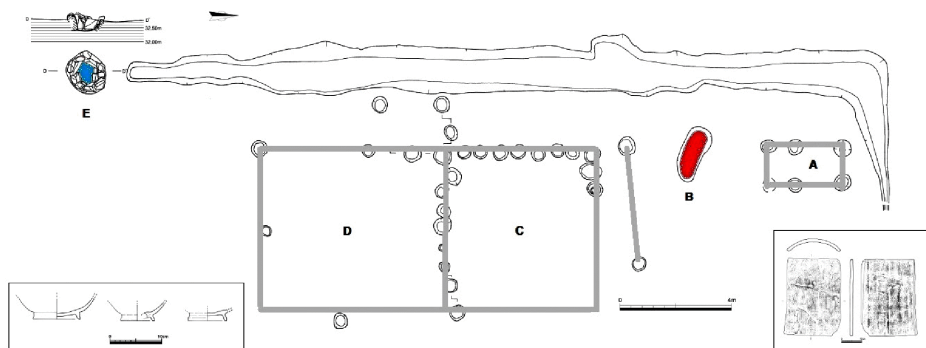
에는 벼루 등의 문방사우(紙·筆·硯·墨)를 보관하던 곳으로, 중심 건물(B)에는 상대적으로 크기가 크고 수량이 많은 제기 등을 보관하던 곳으로 판단된다.



[그림 11] 정비예정지역 내 1차 유적(1호 지상식 건물지 및 주요 출토유물)

2호 지상식 건물지는 1호 건물지와 동일한 구릉의 해발 33.1m 내외의 낮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2호 건물지 역시, 상단부에 ‘ㄱ’자상의 구(溝)를 두르고 그 내부에 기둥을 설치, 내부 공간 구획해서 사용한 건물지이다. 장축은 남-북 방향으로 구의 최대 길이는 27.3m 내외이다.

내부의 주공간의 배치로 보아 최소 3곳의 공간을 구획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서모서리의 건물(A)은 남-북 2칸, 동-서 1칸의 건물로 규모는 270×130cm 내외이다. 중심부 건물은 중앙의 벽을 통해 북쪽(C)과 남쪽(D)으로 공간을 분리하여 사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규모는 북쪽(C)이 남-북 520cm, 동-서 520cm 내외로 평면형태는 방형이다. 남쪽(D)은 남-북 560cm, 동-서 520cm 내외로 장방형의 평면이다.



[그림 12] 정비예정지역 내 1차 유적(2호 지상식 건물지 및 주요 출토유물)

한편 북서모서리(A)과 중심부 건물 남쪽(C) 공간 사이에 길이 180cm, 너비 90cm, 깊이 16cm 내외의 타원형 수혈(B)이 확인되었다. 수혈의 내부에서 불에 의해 소결된 흔적이 확인되어 소성시설로 판단된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3: 72). 타원형 수혈(B)이 음식을 요리하기 위한 시설로 가정할 때 북서모서리(A) 건물은 이와 관련된 재료나 조리 도구를 보관하던 곳으로 생각된다. 또한 수혈유구(B)과 중심부 건물 남쪽(C)의 사이에 동-서 방향으로 연결될 수 있는 2곳의 주공이 확인되었다. 주공의 간격은 420cm 내외로 격벽을 설치하여 의도적으로 공간을 분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격벽시설의 북쪽 수혈유구(B)와 북서모서리(A)의 공간은 제의와 관련된 공헌 음식을 담당했던 곳으로 볼 수 있다. 한편 구상유구의 남측 끝단에는 석축으로 만든 집수정(集水井)¹⁵⁾이 확인되었다. 집수정은 요리에 필요한 물과 혹은 그릇을 세척하는데 사용되었을 것이다. 더불어 출토된 유물 대부분이 자비용기인 자배기류와 완(대부), 호형토기 등 실생활에 주로 사용되는 기종인 점도 관찰된다. 이러한 건물의 용도로 인해 의도적으로 낮은 곳에 배치한 것으로 판단된다.

1호 및 2호 지상식 두 건물지는 유사성이 매우 짙다. 먼저 상부에 ‘溝’를 두른 점, 건물지 내부에 기둥을 배치하여 공간 구획을 한 점, 내부 건물의 배치도 중앙과 북쪽에 둔 점, 특히 북서모서리 건물은 장축 방향만 다를 뿐 크기에 있어서도 거의 비슷하다. 이러한 점으로 볼 때 계획 단계에서부터 함께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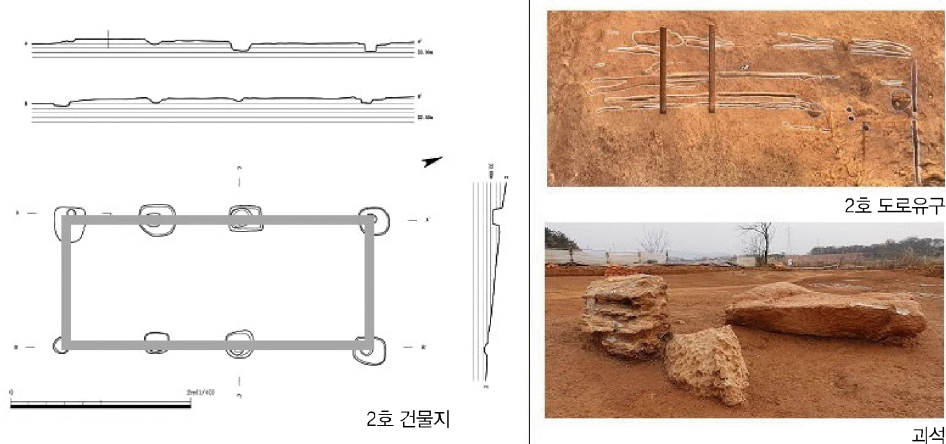
정비에정지역 내 3차 유적은 1차 지역과 남쪽으로 연결되는 구릉이다. 조사결과 삼국시대의 지상식 건물지와 주거지 각각 2기와 도로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구릉의 상단부에는 거주시설이 들어선 반면, 도로유구는 하단부 2곳에서 확인되었는데 위치, 방향성(남-북) 등을 고려해 볼 때 도로유구 1·2는 동일유구일 가능성이 짙다.

2호 건물지는 토심(土心) 구조의 건물지로 1호 주거지와 2호 주거지 사이에 남-북 방향으로 조성되었다. 규모는 남-북 3칸 660cm, 동-서 1칸 280cm 내외이다. 토심 구조의 건물지로는 왕궁리유적에서 정전으로 추정되는 대형건물지와 북문지, 부여 관북리유적의 대형건물지가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건물지보다는 공적인 건물지일 가능성이 높다.

한편 능원의 동쪽 경계로 추정되는 하단부 해발 30m의 지점에서 확인된 남-북 방

15) 집수정은 물을 길어서 사용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축조된 곳의 토양은 제 4기층 소위 고토양층으로 해당지역은 물이 들어오지도 빠져나가지 않는 점토의 밀도가 높은 곳이다.



[그림 13] 정비예정지역 내 3차 유적(2호 건물지 및 주요 유구)

향의 도로유구는 수묘인의 교행로로 추정된다. 또한 동쪽 도로유구 2의 인접한 서쪽 구릉에서 노출된 총 3매의 괴석 중 석회암 2매는 왕궁리유적의 정원석과 매우 흡사하여 이에 대한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

정비예정지역 내 2차 유적은 소왕릉에서 남서쪽으로 200m 정도 떨어진 곡간부 저지대(해발 23.50m)에 위치한 유적이다. 2차 유적에서는 우물을 포함하여 구상유구, 도로유구 등이 조사되었다. 조사지역의 토층 단면 조사결과, 회색점질토(빨층) 상부에 산화망간이 혼입된 갈색사질점토가 유적 전반에 걸쳐 수평으로 퇴적된 것으로 미루어 인위적인 성토 행위가 이루어졌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우물을 포함하여 석렬유구 등도 굴광의 흔적이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성토와 동시에 축조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하층에서 두터운 빨층이 노출되고 있어 원지형이 곡간부의 저지대일 가능성이 높다. 이 빨층에서 삼국시대 토기 및 기와편, 목기, 복숭아 씨앗 등이 출토되었다. 이로 보아 성토 이전에 경작지 등으로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23: 42~45). 따라서 해당지역은 원래 낮은 곡간부(그림 1) 경작지로 이용되던 곳을 거주목적을 위해 대대적으로 성토하여 생활관련 기반시설을 조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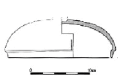
석축의 우물은 평면형태가 원형으로 상부가 넓고 하부로 갈수록 좁아지는 형태이다. 우물의 너비는 상부 60cm, 하부 30cm 내외이다. 우물은 자연적으로 일정 수위가 유지되며, 내부에서 연화문막새편을 포함하여 복숭아 씨앗 등이 출토되었고 주변에서는 삼국에서 통일신라시대에 해당하는 토기편 등이 수습되었다. 수습된 토기편 대

부분이 실생활 기종인 자배기와 완(대부) 등이 차지하고 있다.

전반적인 입지(저지대)나 우물, 실생활 토기 등으로 볼 때 수묘인(守墓人)들의 거주 공간으로 추정된다. 향후 연결한 북쪽으로 확대 조사가 이루어지면 그 성격이 좀 더 명확해지리라 생각된다(그림 14-곡부2).

한편 출토된 유물을 주변 타 유적과 비교하여 개략적인 시기를 살펴보면 대체로 왕궁리유적이나 미륵사에서 출토된 토기류와 기와류 등과 동일한 속성을 지닌다(표 3 참고). 따라서 대왕릉의 피장자가 무왕으로 비정하듯 익산 쌍릉의 제의 혹은 수묘 관련시설 또한 무왕시기인 7세기대에 해당한다. 다만, 일부 건물지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인화문토기, 대부완 등의 토기편이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백제 멸망 후 일정 기간은 기존 수묘인들에 의해 관리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표 3-1] 출토 유물 비교자료(토기류: 뚜껑)

석왕동유적		왕궁리유적		신동리유적	
					

[표 3-2] 출토 유물 비교자료(기와류: 막새 및 인장와)

석왕동 건물지	미륵사지	석왕동 건물지	왕궁리	미륵사지	제석사지
					
					
2차 우물지	익산 연동리	2차 우물지			

[표 3-3] 정비예정지역 내 1차 및 2차 유적 출토 통일신라시대 토기(편)

1호 지상식 건물지 인화문토기편		2호 지상식 건물지 인화문토기편		우물지 주변 대부완	
					

Ⅳ. 익산 쌍릉의 능원 영역과 공간 구성

지금까지 확인된 익산 쌍릉과 그 주변유적의 성격을 토대로 살펴보면 능원은 웅진·사비왕릉원에 견주어 보다 체계적인 능원(제의+수묘)으로서의 경관을 갖추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백제 무왕과 중국 당나라와의 활발한 교류가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중국에서는 이미 춘추시대 ‘능’의 출현과 더불어 ‘수묘(守墓)’ 혹은 ‘수총(守冢)’이라는 용어가 등장했으며, 이는 후장(厚葬)에 따른 도굴의 위험을 방지하는 수위(守衛)에서 시작되었다고 한다(윤재석 2013: 1~3). 이후 진시황제의 여산릉을 시작으로 사상·정치적 의미가 반영된 본격적인 ‘수묘제’가 시행되었으며 이는 후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윤재석 2013: 52). 즉, 황릉을 중심으로 능원(陵園)과 침전(寢殿)·편전(便殿), 그리고 침원(寢園) 및 종묘(廟) 등 대규모 능읍(陵邑)¹⁶⁾이 조성되면서 수묘제는 능침에 제사의 기능까지 담당하였으며, 후대에는 신분 에 따른 수묘제가 법으로 규정되었다고 한다(윤재석 2013: 9).

중국의 역대 황제는 생전의 영화를 사후 지하에 똑같이 재현하고 능원 전체 외곽에 담장은 물론 해자까지도 시설하는데 유적의 방대함으로 인해 해당 유적의 전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중국의 거대한 황제 능원과 우리의 능원을 직접 비교하기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더욱이 문헌기록에 의하면 당나라에서는 국장(國葬)과정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新唐書』에 전하는데,¹⁷⁾ 내용인 즉 당나라에서는 국가의 흉사(凶事)를 신하들이 말할 수 있는 바가 아니라 해서 국장 기록 자체를 없애고 기록 또한 남기지 않았으며, 이는 명(明)나라 『大明集禮』가 편찬될 때까지 변함이 없었다고 한다. 다만, 황실의 상장례와는 달리 관리(황실 구성원과 6품 이상의 고관)들의 상례 과정은 『大唐開元禮』¹⁸⁾에 자세히 수록되어 있다고 한다(이현진 2011: 68~72).¹⁹⁾

16) ‘여읍(麗邑)은 전한대의 능읍과 마찬가지로 특수목적 수행하기 위한 인위적 행정구역으로서 황릉 조성과정에서는 공인(工人)의 생활공간으로 활용되다가 완공 이후에는 황릉의 관리와 수위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17) 『新唐書』 卷20, 志10, 禮樂10, “五曰凶禮 周禮五禮 二曰凶禮 唐初 從其次第五 而李義府許敬宗以爲凶事非臣子所宜言 送其國卹一篇 由是天子凶禮闕焉 至國有大故 則皆臨時采摭附比以從事 事已則諱而不傳 故後世無考焉…… 중략 ……則頗詳焉”

18) 당나라 관리 3품 이상에서 6품 이하의 상장의례 과정이 모두 수록하고 있다.

19) 『대당개원례』는 당나라 이후 중국 왕조의 사인(士人)의 의례와 우리나라 조선 왕실 상장의례인 『國朝五禮儀-凶禮』에 까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우리나라 삼국의 경우 백제를 제외한 고구려와 신라에 수묘와 관련된 사실이 『三國史記』와 「廣開土王陵卑」에 기록되어 있다.²⁰⁾

① 『삼국사기』16, 「고구려본기」4, 신대왕 15년

“秋九月 國相答夫卒 年百十三歲 王自臨動 罷朝七日 乃以禮葬於質山 置守墓二十家。”

② 『삼국사기』3, 「신라본기」3, 소지마립간 7년

“夏四月, 親祀始祖廟, 增置守廟二十家.”

③ 『삼국사기』6, 「신라본기」6, 문무왕 4년

“二月, 命有司徙民於諸王陵園, 各二十戶.”

④ 『삼국사기』43, 「열전」3, 김유신전(下)

“秋七月一日, 薨于私第之正寢, 享年七十有九. 大王聞訃震慟, 贈賻彩帛一千匹·租二千石, 以供喪事, 給軍樂鼓吹一百人, 出葬于〈金山〉原, 命有司立碑, 以紀功名, 又定入民戶, 以守墓焉.”

⑤ 「광개토왕릉비」일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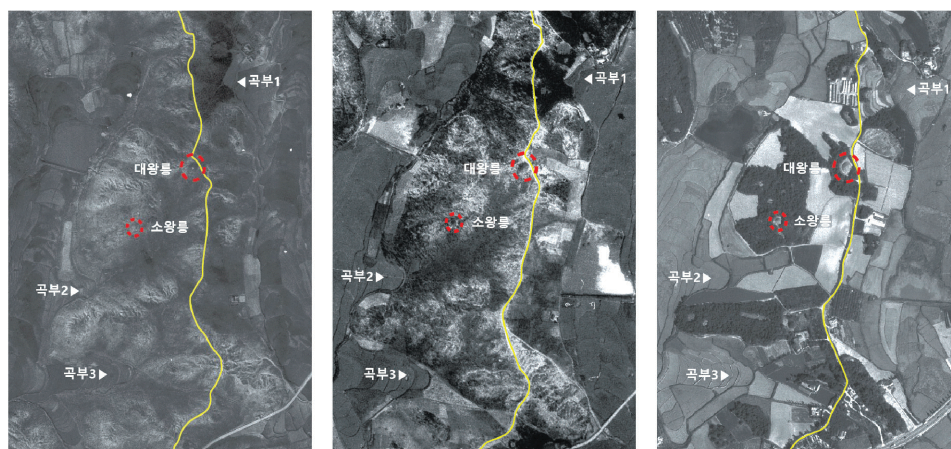
“國置上廣開土境好太王, 存時教言, 祖王先王, 但教取遠近舊民, 守墓洒掃, 吳慮舊民轉當羸劣. 若吳萬年之後, 安守墓者, 但取吳躬巡所略來韓穢, 令備洒掃. 言教如此, 是以如教令, 取韓穢二百廿家. 慮其不知法則, 復取舊民一百十家. 合新舊守墓戶, 國烟卅看烟三百, 都合三百卅家. 自上祖先王以來, 墓上不安石碑, 致使守墓人烟戶差錯. 唯國置上廣開土境好太王, 盡爲祖先王, 墓上立碑, 銘其烟戶, 不令差錯. 又制, 守墓人, 自今以後, 不得更相轉賣, 雖有富足之者, 亦不得擅買, 其有違令, 賣者刑之, 買人制令守墓之.”

위의 기록은 해당 능묘에 배속된 수묘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다. 사료-③에서는 능원으로 수묘 20가를 이주시킨 사실을, 사료-④에서는 묘역의 주변 민호(民戶)들에게 수묘의 부역을 부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기록을 통해 수묘에 전담 배속된 사람들(家)과 부역의 형태로 행한 사람들(家)이 있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광개토왕릉비」에 기록된 수묘 330家에 해당하는 규모는 중국 한나라 황족과 외척 및 고관대작에게 그 신분에 따라 300호에서 100호까지 차등 배치한 예로 보

20) 「집안고구려비」에도 수묘에 대한 기록이 일부 전한다.

면(윤재석 2013: 21~26) 실로 엄청난 인원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비문의 내용을 통해 수묘인들은 능원에 배속된 관리(官吏) 아래 능원과 시설물에 대해 수위·청소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것을 알 수 있다. 위의 기록을 생각해 볼 때 백제에도 수묘(인)제도가 있었을 것이며, 익산 쌍릉 역시 수묘인에 의해 능묘와 부속시설들이 관리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전제 하에 조선시대의 왕릉을 참고하여 능원의 경관과 공간 구성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조선시대 왕릉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살리면서 그 여건에 구조물을 맞추어나가는 자연 친화적인 방식으로 입지를 선택하였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0: 18). 또한 능침공간과 제향공간을 포함하여 능역 외곽의 화재 예방을 위해 설정한 화소(火巢)지역까지도 능원에 포함하였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0: 26~27). 쌍릉 역시 능묘와 주변의 제의시설을 포함하여 능원 내로 일반인들이 접근을 차단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자연지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능원의 영역을 설정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쌍릉의 주변으로 하천 등의 장애물이 없는 점으로 보아 구릉의 골짜기 즉, 계곡을 적극적으로 활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과거 위성사진(그림 14)을 통해 능원의 영역을 설정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14] 익산 쌍릉 주변 항공사진(左:1954년, 中央:1967년, 右:1989년)

위성사진을 통해 쌍릉의 주변 지형을 살펴보면 남쪽으로 뻗은 구릉을 중심으로 동쪽과 서쪽은 남-북방향의 깊은 골짜기를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릉의 정상부에 대왕릉(해발 44m)을 정점으로 남서쪽 구릉 상에 소왕릉(해발 38m)이 자리하고 있다. 그리고 앞서 [그림 7-右]에서 보았듯이 대왕릉과 소왕릉 두 능이 사이에 수

목이 우거지지 않았음도 확인된다. 또한 농경지가 확대됨에 따라 큰 지형적 변화(그림 14-右)가 이루어졌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대왕릉의 북쪽과 소왕릉의 남쪽이 크게 훼손된 것을 볼 수 있다. 위 사진을 통해 익산 쌍릉의 능원 영역을 추정해 보면 동쪽과 서쪽은 큰 골짜기가 형성되어 자연적인 경계가 되었을 것이다. 북쪽의 경계는 대왕릉에서 북동쪽으로 약 200m 떨어진 지점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형성된 계곡부(곡부1)가, 남쪽의 경계는 소왕릉에서 남쪽으로 약 350m 떨어진 계곡부(곡부3)로 추정된다. 이렇게 추정한 능원의 평면 형태는 장방형으로, 규모는 남-북 670m, 동-서 370m 내외로 면적은 260,000m² 정도이다. 능원의 출입구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진입로를 직선으로 연결하면 3차 조사의 도로유구와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북쪽과 남쪽에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해 인력(병사)의 배치나 차단시설을 설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더불어 서쪽의 곡부2 지역은 정비예정지역 2차 조사지역으로 대규모 성토 과정을 거쳐 수묘인의 거주 지역으로 확인된 곳이다. 그리고 전방의 곡간 평야지대는 수묘인의 경제적 활동 영역이었을 것이다.

한편, 쌍릉 주변에서 조사된 시설은 왕릉(능침)을 중심으로 의례공간, 부속건물의 배치는 어떻게 구성되었을까? 조선 왕릉의 경우 봉분이 있는 능침공간과 제사를 위한 시설이 있는 제향공간으로 구분되는데 왕릉은 영혼불멸설에 따라 삶의 공간과 죽음의 공간배치를 일치시켰다고 한다.²¹⁾ 조선시대는 유교적 예의질서로 제도화가 된 반면, 상대적으로 백제를 포함하여 당시 삼국에서 이러한 제도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다만, 왕릉 및 제례를 위한 기본적인 시설과 능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하기 위한 시설물들이 설치되었을 것이다.

현재까지의 조사 성과를 토대로 익산 쌍릉 능원의 공간을 살펴보면 크게 능침공간(A)과 제의시설 및 수묘공간(B)²²⁾으로 구분할 수 있다. 북쪽에 마련된 능침공간이 능원 영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출입구인 남쪽 능원에는 일반인 등의 출입을 제지하는 위병(衛兵)이 배치되고 동쪽 사면으로 위병들이 생활(3차-수혈주거지)과 업무(3차-건물지)공간이 있었을 것이다.²³⁾ 이를 통과하여 북쪽으로 다가서면 동쪽 구릉 하단부(해발 33.10m)에 제의

21) 봉분은 궁궐의 침전공간이며, 제례공간에 있는 정자각의 정전이 북궁, 배위청이 중궁, 정자각 좌우의 수복방과 수라간이 동궁과 서궁, 홍살문이 남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다(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0: 26~29).

22) 본 논고에서의 수묘공간은 능침공간을 제외한 제의 및 수묘 관련 부속시설을 아우르는 공간을 의미한다.

23) 부속건물의 명칭은 조선시대 제례시설의 명칭을 참고하여 사용하였다.

(祭儀) 때 음식을 마련하던 수라간(水刺間-1차 2호 건물지)이, 구릉의 상단부(해발 36.80m)에는 제기(祭器)를 보관하고 제문(祭文) 작성 등에 필요한 물품을 보관하던 향대청(香大廳-1차 1호 건물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향대청의 맞은편 서쪽 사면(해발 31.70m)에는 수묘의 업무를 관장하던 업무공간(官廳-석왕동 2지점 벽주식 건물지)이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들 건물의 북쪽으로는 능침공간을 마련하였다. 능원은 소왕릉에서 대왕릉에 이르기까지 두 능이 동일한 능선 위에 한 눈에 조망되도록 조성하였으며, 두 기의 능을 중심으로 일정 범위 내에는 조망을 저해하는 어떠한 시설물도 들어서지 않았을 것이다. 전체적으로 건물의 배치를 보면 구릉의 정상부에는 의도적으로 회피하고 사면에 부속건물을 배치하였다. 그리고 서쪽 저지대(곡부2)를 복토하여 제일 낮은 곳에 수묘인들의 거주 공간을 마련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이러한 공간 구성은 구릉과 곡간부 등을 적절하게 이용하였을 것이다. 이를 종합하여 쌍릉 능원의 경관을 그려보면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익산 쌍릉원(추정)

V. 맺음말

본 논고에서는 최근 익산 쌍릉 주변의 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능원(제의+수묘)으로서의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익산 쌍릉은 공주 및 부여왕릉원의 능과 달리 저평한 구릉 정상부에 각각 단독(독립)적으로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의 변화는 중국 당나라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쌍릉 주변의 조사 성과와 과거 항공사진을 분석하여 원래 지형에 형성된 골짜기를 경계로 하여 능원의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남-북 670m, 동-서 370m, 평면 형태는 장방형, 면적은 약 260,000m² 내외로 추정되었다.

쌍릉 능원의 공간은 크게 능침공간(A)과 제의 및 수묘공간(B)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능원의 북쪽에 마련된 능침공간(A)은 능원 영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남쪽에는 구릉의 동-서 사면에 북쪽으로부터 수묘의 모든 업무를 관장하는 업무공간 즉, 관청(B-1), 제기 등을 보관하던 향대청(B-2), 구릉의 낮은 하단부에는 음식을 마련하던 수라간(B-3), 그리고 남쪽 출입구 인근에 위병(衛兵)들의 숙소와 업무공간(B-4) 순으로 배치되었다. 그리고 능원 관리의 실질적 주체였던 수묘인들의 거주 공간(C)은 시야에 띄지 않는 저지대에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쌍릉 주변 지역에 대한 발굴조사가 연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그리고 선행된 조사에서도 해결해야 할 숙제가 적지 않다. 그 대표적인 것이 소왕릉 조사과정에서 발견된 두 기의 묘표석(墓表石)이라 할 수 있다. 아쉽게도 묘표석 모두 일제강점기 조사 범위 내 교란층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소왕릉 봉분 내에서 확인된 석주(石柱)형 묘표석은 집안 고구려 고분에 그 사례가 알려져 있다. 고구려 우산하(禹山下) 1080호분으로 대표되는 고구려 석비는 ‘墓上立碑’로 인식하고 있다(강현숙 2014). 중국에서의 석주(石柱)는 통상 능묘의 가장 앞에 설치하는데 그 연유는 장수를 염원하고 군주의 덕정을 희망하는 전통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윤향양·추교순 2011: 101). 이렇듯 많은 의문들이 익산 쌍릉 주변을 산재해 있다.

앞으로 익산 쌍릉 주변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되면 능원으로서 그 완전성을 기대해 본다.

* 본 논문은 2024년 국립부여문화유산연구소-한성백제박물관 공동으로 개최한 『고대 동아시아와 백제의 장송의례』 국제학술대회 발표문 「백제 말 익산 쌍릉(雙陵)의 구조와 매장의례-능원으로서의 기초적 검토-」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참고문헌

- 『後漢書』.
『舊隋書』.
『新隋書』.
『三國遺事』.
『三國史記』.
『高麗史』.
『高麗史節要』.
- 강현숙, 2014, 「집안 고구려비에 대한 고고학적 추론-묘상입비와 관련하여-」, 『고구려발해연구』 50집, 고구려 발해학회.
- 국립문화재연구소, 2010, 『백제 불교문화의 寶庫 미륵사』.
-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2021, 「부여 왕릉원(4호분-서상총 발굴조사 학술 자료회의 자료집)』.
- 국립부여박물관, 2003, 『백제의 도량형』.
- 국립전주박물관, 2015, 『益山 雙陵』.
- 김규운·양숙자, 2016, 「부여 능산리고분군 성격에 대한 재고」, 『문화재』 49,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용성, 2014, 「백제 후기 능묘와 능원의 특성」, 『문화재』 47-2호, 국립문화재연구소.
- 김충현, 2021, 「조선전기 수릉제도의 변화와 그 의미」, 『국학연구』 46, 한국국학진흥원.
- 문화재청, 2020, 『백제왕도 핵심유적 익산지역 발굴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보고서』.
- 박순발, 2024, 「5~6세기 동아시아 세계와 백제」, 『백제 웅진기 동아시아의 문물교류와 지리·교통』, 2024년 백제왕도 학술대회 자료집, 국립공주대학교 역사박물관 외.
- 박용진, 1973, 「公州出土의 百濟瓦·塼에 關한 研究」, 『백제문화』 6, 공주대학교백제문화연구소.
-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2010, 『서울의 능묘』.
- 서정석, 1995, 「송산리 방단계단형 적석유구에 대한 검토」, 『백제문화』 24,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양기석, 2013, 「백제 박사제도의 운용과 변천」, 『문화재』 21, 국립문화재연구소.
- 윤근일, 1988, 「공주 송산리 발굴조사 개보」, 『백제문화』 49,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윤재석, 2013, 「중국고대의 수묘제도」, 『동양사학연구』 124집, 동양사학회.
- 윤향양·추교순, 2011, 『중국 당대 황제릉 연구』, 서경문화사.
-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2012, 『익산 석왕동유적』.
- _____, 2021a, 『익산 쌍릉-조사보고서-』.
- _____, 2021b, 『익산 쌍릉-분석보고서-』.
- _____, 2023, 『익산쌍릉 정비사업부지내 유적-1·2차 발굴조사』.
- _____, 2024a, 『익산쌍릉 정비사업부지내 유적-3차 발굴조사 약보고서』.
- _____, 2024b, 「익산토성 V 구역 문화재 발굴조사-집수시설-학술자문회의자료」.
- 이남석·이현숙, 2016, 「백제 상장례 연구-금강유역 상장유례 유적의 의미」, 『백제문화』 54, 공주대학교 백제 문화연구소.
- 이문형, 2019, 「사비기 백제 왕릉의 새로운 인식-익산 쌍릉(대왕릉)을 중심으로-」, 『백제문화』 6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_____, 2022, 「고고학 자료로 본 익산 쌍릉 피장자」, 『한국고대사연구』, 106, 한국고대사학회.
- 이문형·윤옥희, 2021, 「익산 쌍릉 정비사업부지내 유적 발굴조사」, 『마한·백제문화』, 원광대학교 마한·백제문화연구소.

- 이성준 外, 2018, 「익산 쌍릉과 출토 인골의 성격에 대한 연구」, 『한국고고학보』 109, 한국고고학회.
- 이우영 · 김이석, 2019, 「쌍릉 피장자의 신체특성과 질병」, 『익산 쌍릉-대왕릉 출토 인골 종합학술연구 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이현숙, 2024, 「백제 웅진기 왕릉의 입지와 공간변화」, 『백제문화』 70,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이현진, 2011, 「조선후기 종묘의 부묘 의례와 성격」, 『서울학연구』 43, 서울시립대학교 서울학연구소.
- 임영재, 2022, 「백제왕릉의 변화와 동아세아 능원과의 비교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전북문화재연구원, 2023, 「서동 생가터 유적정비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2·3차) 자료」.
- _____, 2024, 「서동 생가터 유적정비 문화재 발굴조사 학술자문회의(4차) 자료」.
- 조유전, 1991, 「송산리 방단계단형 무덤에 대하여」, 『백제문화』 21,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
- 정재운 · 박초롱, 2019, 「문헌을 통해 본 고대 장송의례-백제를 중심으로」, 『백제학보』 31, 백제학회.
- 최명주 외, 2019, 「대왕릉 석실 축조 재료」, 『익산 쌍릉-대왕릉 출토 인골 종합학술연구 보고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 충청남도역사문화연구원, 2020, 『공주 송산리고분군 정비사업부지 내 유적(A·D지구)』.
- 한국전통문화대학교 고고학연구소, 2020, 『부여 능산리고분군Ⅱ』.
- 有光教一, 1979, 「扶餘陵山里傳百濟王陵·益山雙陵」, 『檀原考古學研究論集』, 第4集.
- 朝鮮總督府, 1920, 『大正六年度古蹟調査報告』.
- 黃曉芬(김용성 역), 2006, 『한대의 무덤과 그 제사의 기원』, 학연문화사.
- 齊東方(이정은 옮김), 2012, 『중국 고고학-수·당』, 사회평론.
- 羅宗眞(정대영 옮김), 2012, 『중국 고고학-위진남북조』, 사회평론.

A Basic Review of Iksan Ssangneung (Twin Tombs) as a Royal Tomb

Lee, Moon-Hyoung (Research Professor, Mahan · Baekje Cultural Research Institute
Wonkwang University)

Iksan region is the ancient capital of Baekje, where visible archaeological remains are scattered such as Wanggung-ri Historic Site and Mireuksa Temple Site which a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King Mu (reign 600–641), the 30th king of Baekje. In particular, the Iksan Twin Tombs, known as the tombs of King Mu and Consort, were re-investigated from 2017 to 2019, which served as a decisive opportunity to broaden the scope of awareness of royal tombs from the late Baekje period. Afterwards, a series of facilities that could be presumed to be ceremonial facilities, including large building sites, were discovered around the Iksan Ssangneung (Royal Twin Tombs).

Baekje's funeral rites are fundamentally known to have been greatly influenced by China. Unlike the royal tombs of Gongju and Buyeo, the Iksan Twin Tombs are located on a low hilltop singlehandedly. This difference in location is believed to be due to the influence of the Tang Dynasty in China.

Thanks to the investigation around Iksan Ssangneung (Twin Tombs) and the analysis of the past aerial photographs, the scale of the royal tomb was estimated to have measurements of 670m north-south, 370m east-west, rectangular in plane, and the area of approximately 260,000m².

The space of Iksan Ssangneung may largely be divided into the tomb space and

the space for rituals and management. The tomb space reserved on the north side of the royal tomb occupies more than half of the royal tomb area.

And it is presumed that, to the south on the east and west slopes of the hill, there were offices in charge of all affairs of the tomb, Hyangdaecheong where articles for memorial services were stored, Suragan where meals were prepared for royal family at the lower part of the hill, and the quarters and workspaces for the guards were placed near the southern entrance. Besides, it is presumed that the living space of the tomb keepers, who were the actual subjects of tomb management, was located in a low-lying area that was not visible.

Key words : Iksan Ssangneung(Twin Tombs), King Mu, royal tomb garden, royal tomb space, rituals, tomb management